

추모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古下宋鎮禹선생님의 탄신 1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安周燮 國家報勳處長, 金우전 光復會長을 비롯한 내빈들이 臨席하고 계십니다. 先生님을 追慕하고 崇仰하는 많은 人士들이 先生님의 誕辰日에 빠지지 않고 모여서 예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오늘은 특히 '부처님 오신날'이어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高麗大學校總長을 지내시고 현재 韓國外國語大學校 理事長으로 계신 洪一植 先生께서 先生님의 略傳을 報告해 주셨으므로 蛇足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마는 언제나와 같이 선생님의 발자취를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先生님께서 日本留學中에 留學生 親睦會를 만드시고 雜誌를 내신 일, 27세의 젊은 나이에 中央學校 學監을 거쳐 校長에 就任하신 일, 中央學校 宿直室에서 仁村 金性洙선생, 幾堂 玄相允선생과 祖國獨立運動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3·1 獨立運動을 일으킨 일등에 관하여는 더 말씀드릴 나위가 없는 줄로 압니다.

선생님께서 펼치신 獨立運動이 다른분들과는 次元을 달리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物資獎勵運動, 文盲退治運動, 民立大學設立運動에 앞장서기도 하셨습니다. 1925年 36세때 하와이에서 열렸던 汎太平洋會議에 參席하셔서 李承晩박사를 만나셨을 때 亡命提議를 받으셨지만 拒絕하시고 國內에서 獨立運動을 주도하시기로 하셨던 일도 有名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言論人으로서 先生님께서 겪으신 일들은 새삼스럽게 紹介할 필요가 없습니다. 東亞日報의 총수로서 民族精神을 代辯·鼓吹하시는 동안 누차의 獄苦를 개의치 않으시고 가시발길을 헤쳐 나가셨던 일들이 우리들 後世들에게는 참으로 값진 敎訓으로 되고 있습니다.

解放直前に 4次에 걸쳐 總督府로부터 政權引受交渉을 받으셨으나 拒絶하셨던 일 또한 所重한 歷史的 事實이 아닐 수 없습니다.

解放이 되자 先生님께서 建國創業의 理念을 밝히시고 民族陣營을 이끌어 나가시는 한편 東亞日報社長으로서 나라 세우기에 心血을 잊으셨던일, 海外亡命 志士들의 還國迎接에 精誠을 바치신 일들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生生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강인한 鬪志와 遠大한 經世方略을 펴보실 機會를 미처 잡기도 前에 暴徒의 轟탄으로 55年の 高邁한 人生을 마감하신 것을 생각하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悲痛한 心情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21世紀에 들어와서 先生님을 再照明하고자 하는 運動이 활발하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先生님의 政治理念과 業績이 討論되기도 하고 學術 論文의 內容이 되기도 합니다. 先生님의 나라사랑 精神을 崇慕하고 繼承해 나가기 위하여 뜻있는 분들이 精熟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펜실베이니아 大學校 政治學 명예교수이며 慶熙 大學校 客員碩座교수이신 李庭植 선생께서 ‘古下의 慧眼’이라는 題目으로 추모강연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두가지 기쁜 消息을 報告합니다. 하나는 長孫인 서울法大 宋相現교수가 지난 2월 4일 뉴욕 UN에서 실시된 國際刑事裁判所 초대 재판관으로 選出된 일입니다. 國際刑事裁判所는 戰爭犯罪·非人道犯罪·集團殺害犯罪등 중대한 國際法을 違反한 個人을 國際社會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昨年 7月 1日 設立된 常設 國際司法機關입니다. 宋교수는 85개 당사국중 63개국의 支持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되었습니다. 18명의 재판관을 選出하는데 33차례 투표가 있었다하니 宋교수가 1次에서 당선된 것은 획기적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宋교수는 1962년에 行政고시에, 1963년에 司法考試에 합격했으면서도 教育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울法大에서 30여년간 商法·民事訴訟法을 강의하는 한편 美國·濠洲·日本·뉴질랜드등에서도 每年 2~3개월간 韓國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國際刑事裁判所 本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까닭에 宋교수의 일정은 더욱 바빠질 것입니다.

國際刑事裁判所의 設置理念이 마치 先生님의 政治哲學과 社會觀 그리고 建國精神을 拔萃한 것 같아서 宋교수의 당선이 더욱 큰 뜻을 지닌다고 믿습니다. 宋교수의 당선은 宋교수 개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榮光입니다. 先生님! 先生님의 손자 宋相現 교수

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世界의 法學者입니다.

둘째로 報告 드리고자 하는 것은 先生님의 生家를 復元하는 일에 관해서 입니다. 先生님은 1890年 5月 8日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에서 탄생하셨는데 우리 記念事業會가 이번에 先生님 生家를 復元하여 紀念館을 建立할 것을 檢討하고 있습니다. 이미 光州 地方報勳廳에도 그 뜻을 傳하였습니다. 뒤늦은 感이 있어 先生님 靈前에 송구함을 禁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해당지역 靑少年들은 물론이고 여러 방문객들에게 歷史的 史料로 活用될 것이고 愛國魂이 살아 있는 教育의 場이 될 것이며 潭陽의 금지도 설 것입니다.

先生님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라크 戰爭·北核問題·韓美關係·經濟問題등 許多한 難題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全世界가 試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때 일수록 先生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돌봐 주시옵소서.